

# 군현 제의 공간 변화의 상징적 의미 해석

-의성군의 성황사와 진민사, 오토산을 중심으로-

김 덕 현\*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II. 의성군의 지형환경
- III. 의성군 제의공간의 변화
- IV. 진민사와 오토산
- V. 요약과 의미함축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의성군의 지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의성의 지역 공동체 제의 공간인 성황사와 진민사의 입지 변화를 해석하고, 오토산 김용비 묘에 대한 전통 지리학적 이해를 추구했다. 경상분지 안의 소분지인 의성읍과 금성면은 의성군의 대표적인 역사적 생활공간으로 의성군의 제의 시설이 집중된 곳이다. 의성군 금성면 고분군과 의성읍의 성황사·진민사는 모두 초월적 세계와 소통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고 정체성을 확인 강화하는 지역공동체의 제의 공간으로 시작되었다. 성황사에서 기원하는 충렬사와 진민사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제의화 과정에서 쇠퇴하거나, 성격을 바꾸어 발전하는 상반

---

\*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 dukhyunk@naver.com

된 적응 현상을 나타냈다. 조선시대 후기에 진민사는 운영 주도 집단이 의성 읍민(향중)에서 의성김씨(문중)으로, 입지는 의성 읍내에서 김용비의 묘소가 있는 오토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통지리학적 관점에서, 의성군의 지리는 산줄기 계통으로 설명된다. 오토산은 금성 모양의 토산으로 풍수적으로 자손을 번성시키고 많은 백성을 보살피는 명당으로 알려졌다.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제의는 지역공동체 축제의 문화적 기초이다. 금성산 고분과 비봉설화, 그리고 오토산 풍수형국은 산을 매개로 자연과 감통(感通)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하고자 하는 우리 전통지리 사상이 현대 한국인과 다시 친근해지는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된다.

◆ 주제어

고분, 성황사, 스토리텔링, 지역공동체 제의, 진민사, 오토산, 풍수, 의성군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글은 의성군의 문화유산인 진민사와 오토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이다. 지역의 문화유산은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고장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 준다. 문화유산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성군지』 등에 수록된 의성군의 지형환경과 역사지리적 설명은 지나치게 소략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의성군을 이해하고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서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의성군의 지형 환경과 지역 공동체 제의 공간의 변화에 대한 고찰, 그리고 오토산에 대한 전통지리적 접근을 통하여 의성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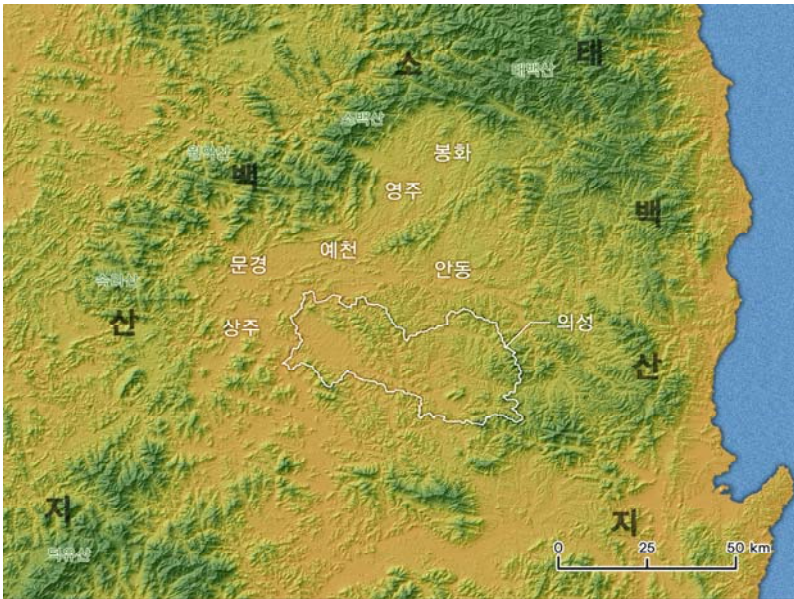
연구 자료로 조선시대 지리지·고지도·의성군 《문화유적분포지도》와 『의성김씨 오토산지』 등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한국 지방행정사와 사회사 연구, 민간신앙(성황사) 관련 저서와 논문 및 문집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조문(召文)-문소(聞韶)-의성(義城)으로 이어지는 의성의 역사지리와 의성군 제사 공간의 변화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성황사 및 진민사의 제의가 자연에 바탕을 둔 성황 신앙에서 유교적 의례로 변화하는 추세에 주목한다. 또 전통지리적 관점에서 의성군의 지리를 산수 형세로 파악해보고, 풍수적 측면에서 오토산과 김용비 묘소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 II. 의성군의 지형환경

한반도 스케일에서 볼 때, 의성군은 낙동강 유역분지인 경상분지 내부에 위치한다. 경상분지는 태백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울진·영양·청송·경주에 이르는 태백산지와, 남서쪽으로 뻗어 소백산·월악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에 이르는 소백산지(백두대간)로 둘러싸여 있다.(그림1) 지도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경상 분지의 내부에는 분지 외곽의 산지보다 낮은 고도의 산지들이 분포하고, 이들 산지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 지류들은 다시 크고 작은 분지들을 만들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는 주요 분지로는 봉화-영주 분지·예천 분지·문경 분지·상주 분지·안동 분지 등이 있다. 의성 분지는 규모가 큰 이들 분지들과 달리 200m 전후의 낮은 고도의 구릉 지역을 흐르는 하천이 만든 작은 규모의 분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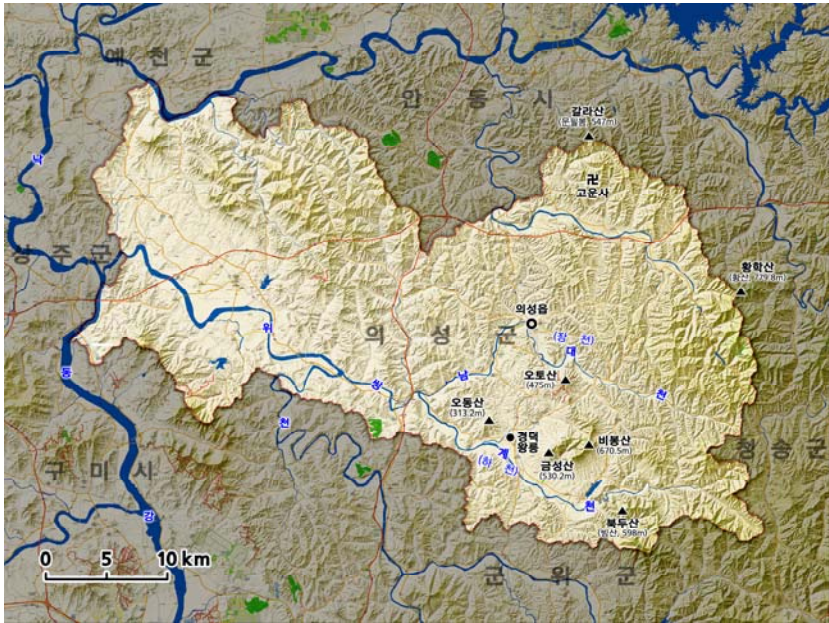
<그림 1> 경상 분지(낙동강 유역분지)

### 1. 동서로 길게 펼쳐진 의성분지

의성 지역은 북부 산지(안동·예천과의 경계), 남부 산지(군위와의 경계), 동부 산지(청송과의 경계) 등 남·북·동 3면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동

서로 길게 뻗은 의성군은 서쪽으로 낙동강 본류에 접하며 동서 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그림 2) 의성군의 서부는 하천들이 낙동강 본류에 합류하면서 형성한 평야가 동부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현대 의성군 영역의 동쪽이 조선시대의 의성현이며, 서쪽은 대체로 조선시대 비안현 영역이었다. 1914년 일제 ‘조선총독부령(111호)’의 ‘부군통폐합(府郡統廢合)’에 따라 비안군이 의성군 관할로 통합된 것이다. ‘부군통폐합’은 대소 격차가 지나치게 큰 조선시대 군현을 조정하는 혁명적 조치로 경북의 경우 41개 부군이 24개로 대폭 통폐합되었다. 이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의성군의 영역은 약 2배로 확대되었다.

의성군의 북부와 남부의 산지 배열 방향은 대체로 북서-남동 방향이다. 의성군을 흐르는 하천은 모두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이들 하천은 대체로 길이가 짧고 유량도 풍부하지 못하다. 의성군내에서 가장 긴 하천인 위천(渭川)은 주요 단층선들(N55°W~N75°W, 가음단층 등)의 방향에 적응해서 북부와 남부 산지 사이를 서북 방향으로 흐른다. 의성군 동부 산지를 뚫고 서쪽으로 흐르는 남대천[長川, 의성읍 유역]과 쌍계천[下川, 금성면 유역]은 남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심하게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며 흘러오는 위천에 합류한다. 위천은 다시 북서 방향으로 흘러 의성군에서 가장 넓은 평야인 안계평야를 만들어 놓고 낙동강 본류에 합류한다. 의성군 북부의 광산천과 신평천은 북부 산지를 관통하여 북쪽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유입하는데, 대부분 감입곡류천으로 협곡을 이룬다. 미천은 동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역시 북쪽으로 흘러 안동에 들어가 낙동강에 합류하는데, 양안에 소규모의 하안단구가 발달해 있다.



<그림 2> 의성군의 지형지세

## 2. 조선시대 의성현의 지형 환경

조선시대 의성현 영역은 현재 의성군의 동부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산지가 많은데,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산줄기가 뚜렷하고 그 사이에 소규모 하곡이 발달해서 평야가 넓지 않다. 산줄기에 평행하는 골짜기와 이를 가로 지르는 동서 방향 혹은 북동동-남남서 방향의 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수많은 소규모 분지가 있다. 그중 비교적 큰 분지가 의성읍과 경덕왕릉 등 고분이 집중된 금성산 서쪽 금성면 일대이며, 이들 2개 분지가 의성의 역사적 중심지 역할을 했다. 옛 읍지에서 의성군의 산지들은 모두 청송 보현산(普賢山, 1,124m)에서 뻗어 내린 지맥으로 설명된다. 『여지도서』 의성 편 산천 조에는 동쪽은 황산(黃山), 서쪽은 두음산(豆音山), 남쪽은 천방산(天放山)과 선암산(船巖山),

북쪽은 마산(馬山)과 등운산(騰雲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산들은 각각 조선시대 의성현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나타내는 산이다. 특히 선암산을 백장령(百丈嶺)의 으뜸 산이라고 표기하면서 조문국 관련 봉황전설에 대한 장현광(張顯光)의 「봉대설(鳳臺說)」을 신고 있다. 이 글은 봉대라는 지명을 통해서 의성의 역사지리를 봉화설화의 의거해서 설명했는데,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고대 의성지역의 중심지였던 금성면 지역의 상징적 산은 금성산(金城山, 570m)이다. 금성산 일대에는 ‘날개를 펼친 봉황새(飛鳳)’ 형국을 조문국 혹은 ‘문소(聞韶)’의 의미와 관련시킨 지명들이 많다.<sup>1)</sup>

조선시대 의성 읍치(현재 의성읍 소재지)가 자리 잡았던 곳은 소규모 하곡이 교차하는 분지이다. 북쪽으로는 안동, 동쪽으로는 청송, 서쪽으로는 상주, 남쪽으로는 의흥-영천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그림 3 <대동여지도> 참조) 고려시대 이후 의성 읍치의 주산은 둔덕산(屯德山)이며, 김용비의 묘소가 있는 산은 오토산(五土山, 475m)이다. 금성산과 오토산은 형태로는 모두 토산(土山)이지만, 풍수에서 오토산은 금성(金星), 금성산은 목성(木星)에 속한다. 특히 오토산은 둥근 모양을 하고 우뚝하지만 뾰족하지 않고, 목직하면서도 뻗어 내리는 힘이 느껴지는 산이다. 오토산은 의성읍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산(朝山)이다.

1) 장현광(『旅軒先生文集』 제7권 잡지)은 「봉대설(鳳臺說)」에서 의성의 옛 이름 문소(聞韶)는 순(舜)임금의 음악인 “소소를 아홉 번 연주하자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簫韶九成 鳳凰來儀)”라는 『書經』 「益稷」 편의 뜻을 취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림 3> 조선시대 의성현의 산천(대동여지도)

의성 읍치 남쪽에 오토산이 있는데, 오토산 정상에서 의성 읍내가 조망된다. 오토산의 기반암은 퇴적암이다. 오토산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누층군(하양층군)에 속하는 사곡층이며, 이 암석은 자주색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된 퇴적암이다. 가까운 곳에 공룡화석이 발견된 것도 이 일대가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지대이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의 곳곳에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 관입암계통인 산성 암맥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땅속의 각 퇴적층은 풍화과정에서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여러 색깔의 흙으로 보인다. 오토산(五土山)이란 지명 유래에는 산이 다섯 갈래의 지맥으로 뻗어 내렸다는 설과 다섯 가지 흙의 색깔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다.<sup>2)</sup> 오토산은 퇴적암 산으로 토산(土山)이지만 산체의 전체 모습이 묵직한 금성(金星)으로 우뚝하고 탁월해서 일대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오토산 서쪽 고갯길에 성황단이 있었는데, 『여지도서(輿地圖書)』 의성현 단묘조(壇廟條)에 의성의 성황사(城隍祠)를 “1670년(현종 11)에 관아의 남쪽 7리 오토산 아래에 옮겨 세웠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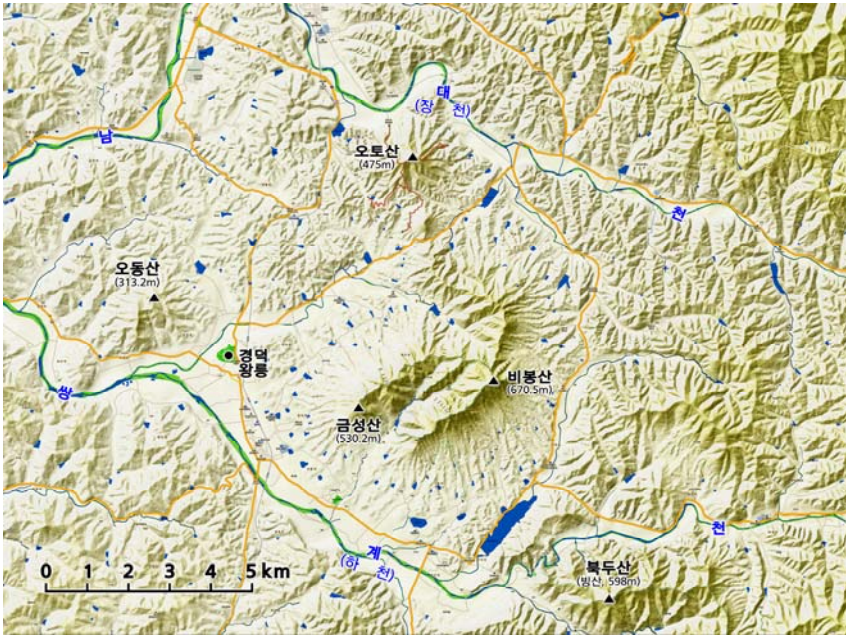
2)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의성문화대전』, 오토산 항목.



의성군 동부의 또 하나의 큰 분지는 금성산 서쪽 금성면 쌍계천 일대로 의성군 동부(조선시대 의성현)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나타나는 곳이다. 금성산 서편은 조문국 시대의 중심지로 보인다. 동쪽으로는 금성산(530.2m)과 비봉산(670.5m)이 우뚝 솟아 있고 서쪽으로는 오동산, 남쪽으로 선암산과 북두산(빙산)이 둘러싸고 있다. 특히 서쪽의 평야지대에서 동쪽으로 금성산을 바라보면 산체가 매우 크고 우뚝해서 신비감이 든다. 이 산들은 이 지역의 기반암(퇴적암)과 다른 화산암 복합체이다. 중생대 백악기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칼데라 산체가 침식되고 남은 산지이다. 금성산과 비봉산이 연결되어 있는 이 일대에는 유천화산암층군을 기반암으로 하는 화산암이 노출되어 있다. 하부 산록대에는 화산활동 초기에 분출한 현무암이, 산지의 정상부에는 화산활동 막바지에 관입한 유문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금성산을 바라보는 산기슭에 조문국 시대의 거대 고분군과 탐리 오층탑이 분포한 것은 고대 성읍국가 시대에 해 뜨는 동쪽에 우뚝하게 솟은 금성산을 배경으로 삼아 신비한 이미지를 얻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금성산 인근에 위치하는 빙계 계곡에는 화산암(응회암) 암괴들이 쌓인 애추(崖錐) 사면이 발달해 있다. 이는 과거 주빙하 기후 환경 하에서 형성되었으며, 여름철에 애추 사면의 암괴들 틈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 나오는 풍혈(風穴)을 이루고 있다.<sup>3)</sup> 조문국 고분군과 탐리 오층탑 그리고 금성산, 빙계 계곡 등은 의성군이 연계해서 활용가능한 주요한 문화적 지형 유산이다.

의성군 일대의 산지 대부분은 퇴적암이지만, 곳곳에 산성암맥이나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퇴적암 지대는 토층이 발달하지 못해 반 토산을 이루거나 토층이 발달해도 그리 깊지 못하다. 화산암 지대는 암설(巖屑) 사면이 많이 보이는 석산(石山)을 이룬다. 의성군 일대는 산지로 둘러싸인 내륙 분지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편이어서 곳곳에 물 부족에 대비하는 소규모 저수지(小留池)가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그림 4)

3) 의성군의 풍혈 또는 빙혈(氷穴)에 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부터 모든 조선시대 지리지에 설명이 있다.



<그림 4> 오토산·금성산 일대의 지형 환경과 소류지 분포

### Ⅲ. 의성군 제의 공간의 변화

한반도의 국가형성 과정에서 군현(郡縣)은 기초적인 정치적·영역적 단위였다. 한국 전통사회에서, 군현은 행정적 군사적 단위인 동시에 본관(本貫)과 같은 지연적 혈연 단위이다. 또한 고대의 성읍국가나 고려의 계수관처럼 대소와 강약이 있는 정치적 단위이기도 했다. 『택리지(擇里志)』 「팔도총론」 편경상도 항목에 “상고 적에 100리 되는 나라들이 경상도 안에 매우 많았지만 신라가 나타나서 이 지역을 하나로 통일했다(上古內有百里之國甚多至新羅出而一之)”라고 하였다. 이는 신라가 의성 지역의 조문국(召文國)과 같은 삼한 시대 이래 지연 공동체적 성읍국가를 병합하여 자신의 지방행정 단위, 즉 군

현으로 편제하는 역사적 과정을 말한 것이다. 성읍국가의 중심지였던 군현의 중심지 곧 읍치(邑治) 주위에는 성곽 뿐 아니라, 고인돌·고분군·산성·성황단 등 다양한 제의 공간들이 입지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적 제의적 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반도의 가장 기본적 정치적 공동체인 군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sup>4)</sup> 나아가 이를 문화유산과 스토리텔링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군현 단위 제의(祭儀)는 군현의 공동체적 역할을 해석하는 유력한 방법이 된다. 전근대 사회에서 제의를 포함한 종교적 활동은 인간이 초월적 세계와 만나는 대표적 방식인 동시에 국가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를 이끌고 단합시키는 상징적 역할을 했다. 공동체사회를 형성한 인간집단이 주기적으로 행하는 제의 활동은 초월적 세계와의 대화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단합을 확인 강화하는 기본적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 있으며 언어-상징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계가 인간에게 해와 달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 산과 강을 통해서 말을 건네고 있다면, 인간은 세계에 대해서 꿈과 상상의 생활 그리고 토렘과 선조(영혼)을 통한 의례 행위로 답한다.<sup>5)</sup> 특히 의례 행위에 주기적 참여는 공동체가 자연이 중심이 되는 초월적 세계와 대화하고 체험하는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의성 지역에서 지역적 혈연적 공동체의 제의 활동이 고인돌, 고분, 제단과 사당, 그리고 묘소 등을 중심으로 일어났음은 고고학적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된다. 한반도의 제의 활동에서 초월적 세계와 대화 소통하는 일차적인 상징물로 산이 탁월하게 등장한다. 산은 한민족의 신화에서 하늘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인식되었다. 한민족에게 산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원천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sup>6)</sup> 특히 풍수적 관념의 도입과 함께 한

4)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112~114쪽.

5) 미르치아 엘리아데·이은봉 옮김, 『신화와 현실』, 한길사, 2011, 199~204쪽

6) 최원석,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관념-천산·용산 그리고 인간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지리학논총, 1992, 69~86쪽.

반도에서 산은 거의 모든 마을과 고을에 활력을 부여하는 생기의 원천으로 여겨져 마을과 군현의 제사 대상이 되거나 제사 장소의 상징적 배경으로 활용되었다. 산은 고려의 송도와 조선의 한양을 비롯한 도읍과 조선시대 읍치의 배경[主山]으로 등장하였다. 의성 지역에서 금성산은 조문국의 근거이자 배경 산이었으며, 금성면 일대의 산들은 봉황 설화를 통하여 상서로운 땅으로 미화되었다. 고려시대 이후 의성 읍치는 보현산에서 흘러나온 산줄기가 머문 둔덕산 아래 입지한 것으로 읍지에 묘사된다. 김용비의 묘소가 있는 오토산은 의성읍의 동남방에 입지하여 읍에서 멀리 조망되는 산(朝山)이며 풍수의 길지로 알려졌다.

고려시대 이후 의성 지역의 고을 단위 제사, 즉 군현 제의에서 성황사(城隍祠)가 중요하다. 고려시대에 지방 토호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성황사를 비롯한 사묘(祠廟)들의 제의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수령이 주도하는 군현 제의로 통합되고 공식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례 행사도 유교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군현 제의의 유교적 정비에는 무속적인 제의 형식과 내용을 유교적 제사로 변화시키는 것, 주도 집단을 지역 토호 내지 향리 층에서 수령이 주재하거나 사족 층으로 변동시키는 것, 그리고 제의 공간의 입지도 읍치 외곽으로 이동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었다.<sup>7)</sup> 성황사의 제의 형식과 제의 공간의 변화에서 의성 지역 공동체의 주도 집단과 제의 이데올로기의 변천 및 의성 지역의 상징 공간으로서 제의 시설 이동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민사를 포함한 의성 지역의 제의 형식과 제의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신라시대의 조문국과 문소군 ; 고분시대와 모전석탑

고분은 한반도의 고대적 상징 경관을 대표하는 탁월 경관이다. 탑을 갖춘

---

7) 정승모, 「군현제외와 국가정책」,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제3장, 아카넷, 2000, 140~159쪽.

불교사찰이 통일신라에서부터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종교적 경관이고, 누정과 사당을 갖춘 서원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교 경관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 삼국시대까지의 고대를 대표하는 상징 경관은 고분이다. 세계적으로도 거대 고분은 신전과 함께 고대를 가장 잘 상징하는 대표적 탁월 경관이다. 거대 고분은 한국의 고인돌을 비롯하여 영국의 스톤헨지 등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 거석문화(megalithic culture)가 발전된 상징 경관이다. 이집트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릉, 일본의 거대 고분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이 그 예이다. 한국에서도 4-6세기에 걸쳐 전국 각지에 거대고분이 조성되었다.<sup>8)</sup>

기원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전체에 걸쳐 거대고분 문화가 일어난다. 기원 전후의 시기에는 지구 기후환경의 한랭화, 그리고 청동기·철기 무기 보급과 함께 전란이 빈발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한(漢) 제국이 쇠퇴하고 동아시아 전체에서 인구 이동이 활발해져, 집단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정복전쟁이 치열한 시기였다. 4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는 물론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에 새로운 실력자들이 나타나 고대 정복국가를 형성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 동아시아 각지에는 적석분(積石墳)·봉토묘(封土墓)·분구묘(墳丘墓), 그리고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등 거대 고총(高塚)이 만들어지는 고분의 전성시대였다.

한반도에서도 기원 4세기에서 6세기 전반까지 조성된 거대 고분이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 이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은 아직도 무덤의 주인(피 매장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것이 다수이다. 길이가 수십 메타에 이르고 높이는 3~20m에 달하는 거대한 고총(高塚)은 마치 산을 만나는 것처럼 보는 이의 시야를 장악하고 시각을 고정시키는 거대한 탁월 경관이다. 이들 거대고분은 사료(史料)가 부족한 고대 국가의 발전과정 뿐 아니라, 고대 사회의 권력구조와 생활문화 그리고 사회조직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수수께끼 경관이다.

8) 上田正昭 외, 『東아시아의 巨大古墳』, 일본 大和書房, 2008.

의성군의 금성산고분군(1998년 4월 13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128호로 지정)은 금성산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낮은 능선과 높지 않은 산정부에 조성된 대규모의 고분군으로 조성 시기가 고분시대인 4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엽까지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은 조성 시기, 신라의 북방 진출로라는 의성의 입지,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墳)이라는 묘제, 그리고 부장품으로 발굴된 금동장식 위세품 등에서 신라의 김씨 왕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문국(召文國) 지배층의 분묘로 추정된다. 금성산을 동쪽 배경으로 삼아 금성산 능선 말단부인 탑리리, 능선 말단부 대리리 능선, 정상부 학미리에 약 260여 기의 고분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것이 확인되었다.<sup>9)</sup>

고분시대에 조성된 한반도의 고분은 후대의 분묘와 달리 그 입지가 대체로 국읍(國邑) 중심지에 인접 입지하여 성읍국가의 기념적 경관이라는 상징적 역할을 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나 성읍의 최고 권력자가 주인인 고분은 거대한 규모의 봉토로 덮어서 평지 무덤보다 장대하고 위압적으로 만들어서 자손과 신하를 감시 보호하는 조상의 유택이라는 인상을 준다. 거대 고분은 왕이나 호족이 죽은 후에도 신(神)으로 전환되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이 통치했던 공동체를 지켜주는 시설로 주민들에게 인식되도록 국읍의 중심지 인근 산이나 높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이다. 거대 고분은 막대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시간을 투입하는 축조 과정, 거대한 규모 등에서 고대 국가 성립기의 신적 권위를 가진 기념비(monument)와 같은 위세 경관으로 이해되고 아래 인용문의 예처럼 활용되었다.

“7년 5월부터 7월에 이르도록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조묘와 명산에 제사하였더니 비가 곧 왔다.”

- 『三國史記』 「新羅本紀」 2권 첨해니사금(沾解尼師今) 조

“선덕왕 3년(782) 칠월에 시림 별관에서 열병을 실시하였다.”

- 『三國史記』 「新羅本紀」 9권 선덕왕(宣德王) 조

9)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의성』, 2014, 56~57쪽.

의성 지역의 고분 역시 국가와 왕권을 상징하는 기념물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성산 고분군이 위치하는 금성면 일대는 조문국에 이어 삼국시대 고대 의성 지역의 중심지로 비정된다.<sup>10)</sup> 특히 고분군이 금성산의 서쪽에 분포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해가 뜨는 때에 금성산을 배경으로 하는 고분군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고분시대에 고분을 배경으로 제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례 행사가 행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5 조문국 고분군의 배경이 되는 금성산  
-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의성』 157쪽에서 캡처

국보 77호로 지정된 의성 탑리리 오층 모전석탑(模塹石塔)은 정확한 건립 연대는 확인되지 않지만 석탑 축조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 초기인 700년을

10) 의성조문국박물관, 앞의 책, 89쪽.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탑리 석탑의 등장은 기원 1세기에서 6세기에 걸치는 동아시아 고분시대의 종료와 시대를 같이 한다. 불교가 공인되는 6세기부터 경주 지역에서도 고분 축조가 사라지고 왕릉이 산속으로 들어간다. 고분 대신 불탑과 사찰이 권위와 상징적 경관으로 나타난다. 고급 종교인 불교가 도입되면서 거대 고분과 같은 탁월한 경관의 상징적 효용이 사라지고, 불교가 지배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면서 상징적 기념 경관도 불사나 불탑으로 대체된 것이다. 삼한시대의 성읍국가 조문국은 185년(법흥왕 2) 신라에 병합되어 조문군(召文郡)이 되고, 다시 757년(경덕왕 16) 전국의 군명을 중국식 2자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문소군(聞韶郡)으로 바뀐다. 940년(고려 태조 23)에 의성부로 승격한다. 문소군 시대에서 의성부 시대 사이에 의성군의 치소가 금성산 아래에서 현재의 의성읍으로 이동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의성군의 성황사와 충렬사

의성군의 중심이 금성산 아래에서 현재의 의성읍으로 이동된 후삼국시대 이후, 의성군의 제의 공간으로 성황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영웅적 인물의 사당이 주목된다. 조선시대 의성 읍지(邑誌)와 지도에 성황사(城隍祠) 혹은 성황단(城隍壇), 그리고 충렬사(忠烈祠)와 진민사(鎭民祠)가 기록되고 표시되어 있다. 이들 성황사와 사당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입지 특성 및 이동에 관련된 자료를 통해서 고려시대 이후 의성군 제의 공간의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성황사는 지방 세력의 상징적 인물에 대한 신앙과 국가의 군현 제사 정책이 결합된 결과이다. 고려 중기 이후 나타난 성황 신앙은 고려 말부터 국가 제사의 대상이 되고, 조선 왕조에서도 관인(官認) 성황사가 모든 군현에 설치되어, 사직단(社稷壇)·문묘(文廟)·여단(厲壇)과 함께 군현의 제사 시설로

---

11) 의성조문국박물관, 앞의 책, 222쪽.



정비된다. 태종 6년(1406)에 명나라의 「홍무예제(洪武禮制)」의 주·부·군·현의 예에 의거하여, 고려 시대부터 시행된 각 고을 향교의 문묘(文廟) 외에 사직단(社稷壇)을 지어 춘추에 제사도록 하고, 여제(厲祭)를 시행하였다. 여제란 “제사 지내 줄 자손이 없는 귀신[無嗣鬼神]에 대한 제사이다. 이후 이런 제사들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소사(小祀)로 등재되어 모든 주현에서 시행되었다. 또 산천, 성황, 풍운, 뇌우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단(壇)들을 「국조오례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성황사로 수렴하여 재배치하고 수령 주재로 제사하도록 했다.<sup>12)</sup> 중앙집권 강화 방안으로 취해진 군현제사 정비에 의하여 ‘文廟·社稷·城隍·厲祭’ 라는 4개 지방 군현 제사 제도가 확립된 것이다. 1530년 만들어진 『신중동국여지승람』에는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 328개 군현 거의 모두(325개)에 성황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13)</sup> 이러한 국가 사건의 정비를 통해 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거나 형식에 어긋난 제사는 곧 음사(陰祀)로 규정되었다.

군현 단위에서는 지역 고유의 전통에 따라 각종 신사(神祀)가 있는데 고려 중기 이후는 고을 토호들이 자신들의 시조를 성황신으로 모신 사적(私的) 성황사를 건립한 예가 많다. 이는 나말여초 군현의 발전에 공이 큰 지방 토호가 성황사의 신격(神格)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초기부터 다양한 제사를 음사 혹은 좌도(左道)로 규정하여 금지하거나 성황사로 흡수 통합하는 노력이 계속된다. 대체로 17세기 이후 성황사는 관이 주도하는 유교적 제의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군현 제사의 변화 추세가 의성군에서도 나타난다.

조선후기 의성군 읍지와 고지도, 그리고 지명사전 등에 보이는 의성군의 성황사는 관아 북쪽 3리의 성황사, 관아 남쪽 7리 오토산 아래에 옮겨 세운 성황단이 있다. 18세기의 『여지도서』에는 성황사가 관아 북쪽 3리에 있는데, “김홍술을 제사 지낸다” 하였고, 1670(현종 11)에 관의 남쪽 오토산 아래

12) 한형주, 『조선초기국가제례연구』, 일조각, 2002.

13) 서명대, 「한국 중국의 성황신앙사와 순창의 <성황대신사적>」,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423쪽.

옮겨 세웠다고 하였다. 19세기 지도 <문소지도>에는 관아 북쪽은 ‘성황사’로 표기되고 사당 건물이 그려져 있으나, 읍치 남쪽 오토산 아래에는 ‘성황당’으로 표기되고 장소 표시만 되어 있다. 『여지도서』 지도에는 오토산 서쪽에 ‘성황당’으로 표기되고 터가 그려져 있다. 또 『한국지명총람』에는 ‘서낭당 터’가 오토산의 북쪽 오로리 뒤쪽. 의성읍 오로리에서 금성면 만천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다고 하고, “지금도 나무와 돌이 있다”라고 하였다.<sup>14)</sup> <문소지도>에 그려진 관아 북쪽의 성황사는 사당이 있는 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읍치 북서쪽 철과역(鐵坡驛) 가는 길에 북원(北院)과 비보수(裨補廡)가 있고 그 앞에 성황사가 그려져 있다. 또 시내 건너편에는 여제단(厲祭壇)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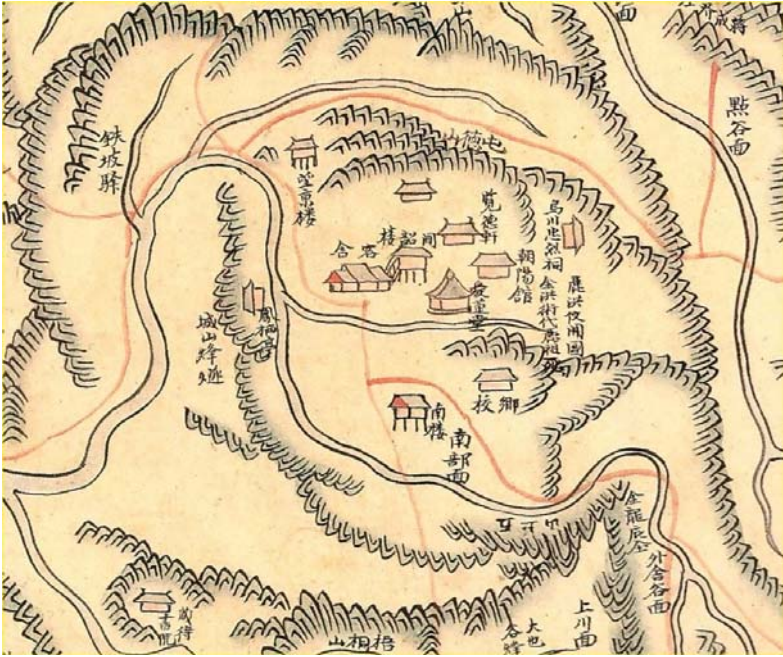
<그림 6> <문소지도(閔韶地圖)>에 나타난 의성 읍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4)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7(경북편IV)』, 1979, 367쪽.

조선 전기까지 있었던 의성 읍치 북쪽의 상황사는 그 입지가 의성 읍치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이었다. 인근 철파리 일대는 의성읍의 입구로 역촌과 원(院), 그리고 제사 받지 못하는 원귀(冤鬼)를 모시는 여제단 등 의성읍의 제사 및 교통 시설이 집중된 곳이었다. 조선 후기에 읍치의 남쪽으로 이동된 성황단(성황당)은 의성읍에서 금성면으로 넘어가는 한적한 고갯길에 돌과 나무로 이뤄진 평범한 서낭당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의 군현 제사장소가 좌묘우사(左廟右社), 남성황북여단(南城隍北厲壇)으로 정비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의성의 영웅적 인물인 김홍술에 대한 제사 기능이 성황사에서 충렬사 설치로 분리됨에 따라 성황사의 위상이 군현 제사가 아닌 민간 신앙인 사당당 수준으로 격하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황사에 모셔졌던 고려 개국 시기의 의성 성주 김홍술에 대한 제사는 조선 후기인 1706년(숙종 32)에 읍치의 주산이 되는 둔덕산 아래에 세워진 충렬사로 옮겨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 의성현 단묘(壇廟) 조 성황사에, “전하는 말로 김홍술의 모습이 고려 태조와 비슷했는데, 백제의 견훤과 싸우다 패배하여 이곳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의 제사를 지낸다.(在懸北3里 新增 俗傳 金洪術貌似麗祖 與百濟甄萱戰死之 仍祠于此)”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시행되어 온 김홍술에 대한 제사는 충렬사라는 별도의 사당이 마련되기 전까지 성황사에서 지냈다고 볼 수 있다. 『여지도서』 단묘 조 신증(新增)에는 진민사와 충렬사가 수록되어 있다. 충렬사(忠烈祠)는 “관아의 동북쪽 오천 가에 있다. 1706년(숙종 32)에 고을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사당을 세우고 김홍술의 위패를 모셨는데, 오천은 바로 김홍술이 싸우다 죽은 곳이다”라고 하였다. 18세기 영조 때의 지도인 <해동지도>에도 읍치 동북편 둔덕산 아래 오천(烏川) 충렬사(忠烈祠)라고 표기하고 사당 건물을 그려놓았다. 읍지에 “둔덕산은 보현산에서 뺀어 나와 우리 고을 터의 으뜸 되는 산줄기이다. 둔덕산 고성은 관아의 동쪽 동리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김홍술의 전사지는 둔덕산 고성 근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성 읍성이 “토축(土築)이고 주위는 4729척인데 지금은 폐지되었다”고 하니 둔

덕산 고성은 고려시대의 읍성으로 추정된다. 다음 <해동지도> 의성현 지도에 오토산과 김용비묘도 표시되어 있다.



<그림 7> <해동지도> 의성현 지도 읍치 부분

충렬사의 위치는 현재 의성을 상리1리(사당골)의 ‘고려김장군순절비’가 있는 곳이다.<sup>15)</sup> 1776년에 세운 순절비 비문에 “구성산에 올라 북쪽 산골짜기를

15) 김홍술이 사망한 이후 토착 세력들이 사망한 장소에 그를 기리는 성황사(城隍祠)를 건립하고 의성의 성황신으로 모셨다. 그러다가 1706년(숙종 32)에 향공 진사(생원의 잘못) 김석겸(金錫兼)이 주도하여 성황사에 위패를 안치하고, ‘충렬사(忠烈祠)’라는 편액을 걸어 유교적인 사우(祠宇)로 전환시켰다. 1745년(영조 21) 수령이었던 송요보(宋堯輔)와 향촌 사족 김경천(金敬天)에 의해 사우가 중창되었다. 1804년(순조 4)에는 의성 현령 김리복(金履復)과 그의 형 김리곤(金履坤)이 홍술장군순절비(洪術將軍 殉節碑)를 건립하였다. 충렬사는 현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상리리 사

바라보니 울창하여 기이한 기운이 서려 있는 듯하였다. 고을 선비에게 물어 보니 대답하기를 ‘이곳은 둔산(屯山)인데 옛날에 장군 김홍술이 이 산 아래에서 전사하였으므로 그의 사당을 세웠습니다.’하였다.” 충렬사를 세우게 된 내력에 대하여 “처음에 장군의 사당을 성황신과 함께 제사하였는데, 우리 숙종 병술년에 고을사람인 생원 김석겸 등이 장군을 성황신과 함께 제사하는 것은 예가 아니라 하여 마침내 나무로 신주를 만들고 조두(俎豆)로 제사하고 충렬사라 하였다”라고 하였다.<sup>16)</sup>

의성읍의 성황사는 성황신앙이 시작된 고려시대부터 김홍술을 성황신으로 모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황신앙은 중국의 민속에서 나왔는데 본래 도시의 수호신이다. 이것이 고려 초 우리나라에 들어와 무속신앙과 결합된 것으로 믿어진다.<sup>17)</sup>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고려 개국 초기 인물인 김홍술이 신으로 제사 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의성 뿐 아니라 선산·해평·성주·양산 등에서도 지역 호족으로서 고려 개국에 공이 큰 인물이 그 군현의 성황신으로 모셔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황사가 국가의 공인을 받아 군현 제사로 정착된 조선시대, 특히 유교가 생활규범으로 정착되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김홍술에 대한 제사는 성황사에서 빠져나와 충렬사에서 유교식으로 지내게 되었다. 앞의 『고려김장군순절비』에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의 지도층인 유학자가 성황사에서 무속으로 제사하는 것은 장군에 대한 올바른 예가 아니라고 지역민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조선 영조 때 전국 각 읍의 서원 사우 영당의 사적을 조사 정리하여 중앙에서 편찬한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 의성현 충렬사 사적에는 “고을의 이서(吏胥)들이 해마다 장군의 충의를 돌이켜 느껴서 황제봉 아래 오천동에 드디어 사당 건물을 세웠으니, 곧 장군이 절의로써 사망한 장소이다. 해마다 봄가을이면 향리들이 3차로 향사하는데 반드시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북을

당골에 있다. - 김홍술 [金洪術]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6) (사)의성향토사연구회, 「의성의 수령비」, 16-19쪽.

17) 양정욱, 「순창 성황대신사적 현판의 발견과 의의」,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73쪽.

치고 생활을 불도록 하였다. 그 후 우리 왕조로 들어와 1487년 유희인(兪好仁)이 고을 수령으로 와서 고을 사람들이 장군을 잊지 아니했음을 보고는, 제의(祭儀)가 거칠고 허망하다고 생각하여 영향송신곡(迎享送神曲)을 지었다”라고 하였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유희인의 송신가(送神歌)에 “신령의 양양 함이시어 산의 머리로다. 구름 몽게몽게 피어오르는데 그옥이 찾아보네. 북소리 울리며 춤이 계속되네... 나쁜 귀신을 쫓아내니 큰 복을 내리시는구나. 우리 백성이 보답하니 해마다 더 늘리시는구나!”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유희인의 의성 고을을 유교식으로 교화하려 했지만 그 당시에도 여전히 무속적 형식으로 역병 퇴치와 복을 비는 음사적(陰祀的) 성격의 제사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7세기에 충렬사로 옮기기 전까지 성황사에서는 고을 아전들이 주도하여 굿판과 유사한 무속적 방식으로 제사를 지냈으나, 1706년 숙종 연간에 둔덕산 아래 골짜기에 충렬사를 지어서 성황사로부터 독립하고 나서는 무속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유교 예에 따른 제의로 바뀌었음을 말한 것이다.<sup>18)</sup> 제의를 주도하는 집단도 향리계층의 토호세력이 아니라 생원(生員)과 같은 사족(士族)으로 변화된 사정을 함축한다. 따라서 1679년(현종 11)에 성황사를 관아 남쪽 7리 오토산 아래로 옮긴 것도 성황사를 읍 치소 남쪽으로 이전하는 추세와도 관련 있지만, 읍치 중심에 있던 김홍술 사당을 산속에 충렬사로 독립시킨 것은 군현의 향리들이 주도해온 전통적 성황 신앙이 주변화 되는 성황사의 쇠퇴 과정을 함축한다.

### 3. 김홍술과 의성김씨

의성 성황사에 모셨다가 충렬사로 건립하여 제사한 인물 김홍술(?~929)

---

18) 위 『열읍원우사적』 의성현 편에 “진사 김석겸이 김홍술의 오천동에 서당을 창건하고 장군의 사당과 가까이 있어 그 예에 맞지 않은 음사에 탄식하였다. ... 즉시 위패를 만들어 옛 사당에 안치하면서 충렬사로 편액하고 사당을 제사로 해서 제사를 서원 생도들이 봉행하도록 하며 제례 일체를 서원 사례에 따라 하되 제수는 향리들이 바치도록 했다”

은 신라말 고려초에 활동하던 장군이며 의성부의 성주이다. 고려태조를 위하여 견훤과 싸우다 전사한 후, 의성읍민들에게 의성 고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진 인물이다. 『고려사』에 “진보(眞寶) 성주 홍술(洪術)이 사신을 보내 투항을 청했다.” 『경상도지리지』에 “김홍술은 고려태조 때 향리로서 성주(城主) 장군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견훤이 의성부 성을 공격하여 고려장군 홍술이 출전하여 맞서 싸웠으나 죽었다.” “견훤이 의성부성을 공격하여 성주장군 홍술이 전사했다. 왕이 통곡하며 나는 좌우 팔을 잃었도다.” 등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홍술은 고려 태조에게 인정받은 고려 개국의 영웅이다. 홍술의 공으로 문소군은 ‘義城’이라는 이름을 얻고 의성부(義城府)로 승격했다.<sup>19)</sup>

홍술이 의성의 성황신으로 모셔진 사유는 의성의 고려시대 위상, 즉 읍격 변동과 관련해서 설명되기도 한다. 의성은 고려 초기에 홍술의 등장과 함께 의성부로 승격되었으나, 후대에 안동부의 속현으로 강등되었다가(고려 현종), 회복되어 현령을 두었다(인종). 적에게 함락되었다는 이유로 감무관으로 격하되거나(신종), 대구로 병합되었다가(충렬왕) 다시 현령을 두었다. 조선 시대에는 현령을 두었다. 고려시대의 의성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지방 호족이 지배했다. 의성을 지배하는 호족들에게 고려 개국 공신 홍술(洪術)을 성황신으로 추앙하는 것이 의성의 전국적 위상을 높여서 대외적으로 의성의 읍격(邑格) 회복을 도모하는 방법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19) ‘부(府)’는 신라의 군현제도에 없는 것으로 나말여초 고려 태조가 만든 특별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다. 서울인 개성부를 제외하고, 『고려사』 지리지에 수록된 부는 모두 10개이다. 부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설치한 거점 역할을 하는 부와 유력 호족의 출신지를 대우하기 위한 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예로 천안부는 후백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김해와 남원은 신라시대의 소경이고, 안북(安北)부는 북계의 요충이다. 후자의 예는 안동을 비롯한 고을(高鬱: 永州로 개명)·흥려·보성·의성·경산 등 6개부가 있다. 유력 호족의 출신지로 부가 된 6개는 모두 경상도 지역에 속했다는 점에서 경상도 지역 호족의 강성함을 알 수 있다. 고려왕조 창립기의 10개 부는 지방관이 아직 파견되지 않고 부의 호족이 지배하에 있었다. 속군 속현도 관찰하는 부의 호족이 지배하였다. - 旗田魏, 『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37쪽.

성황 신앙을 통하여 지역의 주도 세력으로서 존재를 과시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sup>20)</sup> 따라서 “해마다 봄가을이면 향리들이 3차로 향사하는데 반드시 무격(巫覡)으로 하여금 북을 치고 생황을 불도록 하였다”한 것처럼, 지역의 호족이었던 향리 계층이 홍술을 의성의 성황신으로 모시고 성황제를 주도하였던 것이다.

의성의 성황신이 된 홍술이 의성부의 성주로서 김씨 성을 사성(賜姓)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의성을 본관으로 하는 의성김씨의 조상은 아니다. 이 점이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김용비(金龍庇)를 제사하는 ‘진민사(鎭民祠)’ 이해에 중요하다. 일부 사료와 연구에서 의성지역과 홍술의 관계를 근거로 홍술의 후손인 의성김씨가 의성의 유력한 토착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김종직은 유희인을 전송하는 시에서 “사람은 홍술의 후예가 많고(人多洪術裔)”라고 하였다.<sup>21)</sup> 일본의 조선사 연구학자 하다다(旗田巍)는 “홍술의 일족과 자손은 고려와 이조를 통해 이 지방의 명족으로 번영하였다. ... 김씨 성을 이어받은 씨족 곧 홍술의 일족이 이 지방에 모여 살아 번영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였다.<sup>22)</sup> 국내 성황사 연구자 정승모는 “金洪(弘)術은 의성김씨(義城金氏)의 3세로서 922년에 의성부의 성주가 된 자이다”라고 했다.<sup>23)</sup> 이는 의성김씨 족보에 나오는 김석(金錫)의 손자 ‘金弘術’과 의성 성주 ‘金洪術’을 혼동한 것이다. 의성 성주 洪術(金洪術)이 의성김씨가 될 수 없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생존 년대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와 동시대 인물인 洪術(金洪術)은 929년에 죽었고, 신라 경순왕은 935년 12월 고려에 귀순하여 고려태조의 사위가 되었다. 고려태조의 외손자가 되는 의성김씨 시조 김석(金錫)은 홍술의 사후 수 십 년 뒤에 태어난 인물이다. 따라서 김석의 손자인 ‘金弘術’과 의성 성주 ‘金洪術’은 동일 인물이 될 수 없다.

20) 변동명, 「성황신 김홍술과 의성」, 『역사학보』 188, 2005.

21) 『여지도서』 「의성현」 제영 조.

22) 旗田巍, 앞의 책, 21~22쪽.

23) 정승모, 「군현 제의와 국가정책」,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제2부 제3장, 아카넷, 2000, 146쪽.



의성김씨들은 김석의 9세손 되는 김용비(金龍庇)를 ‘시조’로 삼는다. 학봉 김성일은 그의 아버지 김진(金璣)의 「묘지(墓誌)」에서 “태자첨사 용비공이 시조이다(太子詹事諱龍庇公 其始祖也)”라고 했고, 동강 김우옹은 「시조태자첨사부군묘비」에서 “우리 시조 고려태사첨사부군(我始祖 高麗太子詹事府君)”라고 했다. 진민사는 김홍술을 제사하는 성황사 혹은 충렬사와 별도로 김용비를 지역 수호신으로 모신 사당이다. 후삼국시대 고려의 개국에 기여하여 군현의 성황사나 사당에 제향된 인물은 의성의 김홍술을 비롯하여 안동의 삼태사, 선산의 김선궁(金宣弓)을 비롯하여 사례가 많다.<sup>24)</sup> 고려 개국 이후 인물로 군현의 읍사(邑司)에 사당이 세워져 제사를 받는 경우는 진주의 강민첨사(姜民瞻祠)가 있었다. 강민첨(姜民瞻)은 1018년(고려 현종9)에 거란군과 싸워 이긴 공로로 국가로부터 은렬사(殷烈祠)라는 이름을 받고 주사(州司)에 사당을 두었다고 한다. 성황사에 모셔진 인물이 아니면서 읍내 관아 인근에 사당이 있고 고을 주민에게 은덕을 베푼 인물로 제향되었다는 점에서 강민첨의 은렬사와 김용비의 진민사는 매우 유사하다. 강민첨사의 경우 진주 호장층인 진주강씨들이 계속 주도해 왔으나, 의성의 진민사의 경우 조선 후기에 비로소 의성 지역 밖에 사는 김용비의 후손 의성김씨들이 제사에 광범하게 참여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 IV. 진민사와 오토산

### 1. 진민사

진민사는 의성읍지에 김용비를 제사하는 사당으로 나온다. 18세기 지리서

24) ‘진민사’라는 사당 명칭은 선산의 고려개국공신 선산김씨 시조 김선궁의 사당 이름이기도 하다. 선산 읍사무소 뒤편에 있는 김선궁유허비각은 경상북도문화재(문화재자료 554호)로 지정되었다.

인 『여지도서』 의성현 편 단묘 조 진민사 항목에, “조양관(朝陽館) 동쪽에 있다. 고려 태자첨사 김용비가 백성들에게 공덕을 남겼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위패를 두고 제사를 모셨다. 정덕(正德) 연간(명나라 무종 1506~1521)에 그의 방계 자손인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이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사당을 세웠으며, 후손인 김성일(金誠一)이 ‘鎮民祠’라는 이름을 걸었다”라고 하였다. 조양관은 동헌에 부속된 건물로 19세기 지도 <문소지도>에는 조양관 동쪽에 ‘관청(官廳: 邑司)’이 그려져 있다. 진민사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의성 읍민에 의하여 사당이 건립되었고 그 위치가 향리들의 집무처인 읍사 부근인 것으로 보아 향리들이 제사를 주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제사 장소와 운영의 주도권이 변화되는 추세가 보인다.

김용비의 묘비와 진민사의 중수 및 이건 기문을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진민사의 제사 주도층과 입지의 변동추세가 파악된다. 진민사는 의성현 읍민(鄉中)의 제사에서 점차 의성김씨 종중(宗中)이 주도하는 제사로 변화되고, 그 입지도 관아 가까운 곳에서 읍내의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다가 마침내 오토산의 김용비 묘소 아래로 이전된다.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 자료인 1577년 김우옹(金宇顛, 1540~1603)의 「시조태자첨사부군묘비」에 김용비가 “백성들에게 큰 공덕이 있었으므로 고을의 백성들이 오래도록 이를 잊지 못하여 오토산 묘소 근처에는 나무를 하거나 소와 양을 치는 것을 금하고, 함께 의성 읍내에 사당을 설립하여 제사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이 없고, 관에서는 경내 노비들에게 요역을 면제하고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 수 백 년이 되어 하나의 고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1517년(정축년; 중종12)에 방손(傍孫) 김안국이 그 풍속을 이름답게 여겨 조세를 경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이로부터 고을사람들이 제사를 받들기를 더욱 정성스럽게 했다”라고 했다.<sup>25)</sup> 진민사의 의미에 대하여, “옛적에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 드

25) 『연려실기술』 「祀典典故」 書院 조에 “진민사는 정덕 정축년(1517)에 세웠다. 김용비는 고려조의 태자첨사이다. 충렬사, 김홍술(金洪術) 고려조의 장군이다.”

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큰 재앙을 막으려고 제사를 드렸고 큰 가뭄과 같은 재난을 막으려고 제사를 드렸으니, 곧 공덕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두터이 보답하여 그 처음을 잊지 않았던 까닭이다”라고 했다. 지역민이 사당을 세우고 김용비를 제사하게 된 동기는 성황사나 홍술의 사당과 유사하다. 공덕이 큰 인물을 신격화하여 제사함으로써 재앙을 막고 복을 비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조선 전기까지 진민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지역 내 유력자층(鄉中)이고 지역 밖의 후손(門中)의 역할을 크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지역공동체인 향중의 참여는 줄어들고 문중과 혈연 관계에 근거한 씨족공동체의 비중이 확대된다. ‘의성김씨오토산추원사업회’가 발간한 『義城金氏 五土山誌』에 진민사의 이전과 중창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다. 이 기록에 따르면, 1652년에 김용비의 외손이 안응창(安應昌)이 의성현령으로 부임하여 쇠락한 진민사를 이관하여 확충하게 된다. 학사 김응조(金應祖, 1587~1667)는 1662년 「진민사이건기」에서, 김응조는 김용비의 사당이 세워진지 8백년이 되었다 하고, 진민사를 옮겨 세운 의의를 “묘(墓) 앞에는 석물이 없었고 향화가 끊어졌으며 정사(精祠)는 번잡한 길가에 있었기에 말발굽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요란하여 영령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1656년(효종 10, 병신)에 의성 현령으로 부임한 외손 안응창이 구묘의 읍 뒤편 길가에 있던 정사를 옛 사당(廟) 동쪽으로 옮겨 세우니 중건한 사당의 모습이 위엄이 있었고 재당(齋堂)과 주사를 아울러 세움에 옛 제도를 옮겨 경관을 우뚝하게 하였다. 이어 문중 사람들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위토(位土)를 마련하여 제수를 넉넉히 함으로써 오래도록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였다. 진민사가 세워진지 8백년이라고 한 것은 당시까지도 김용비의 생존 시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sup>26)</sup> 17세기 중

26) 김응조가 「진민사이건기」를 쓴 17세기로부터 8백년 전이라면, 고려 개국 이전 후삼국이 일어난 9세기로 통일신라 말기 혼란했던 시기이다. 김응조는 김용비의 활동 연대를 통일신라 말기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용비의 활동시대는 1200년대 즉 13세기로 비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무신란’에 이어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발생하고, 몽고군의 침입이 시작된 때이다.

반에 성황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있던 진민사를 옛 사당 동쪽으로 옮기고 규모를 갖추어 권위를 높였다고 하였다. 또 “문중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會宗人祭之)”는 것은 제사의 주체로 지역민만이 아닌 후손을 참여시킨 것을 말한 것이다. 와계 김성흠(金聖欽, 1682~1757)의 1749년의 「진민사중수기」에는 재실이 기울고 무너져 춘추제향도 폐지되자 여러 종친들과 상의하여 사당을 중수하고 제위전(祭位田)을 다시 마련하였다고 했다. 귀와 김굉(金楹, 1739~1817)의 「진민사중수기」에는 1802년(순조2, 임술)에 의성김씨 종친들이 진민사에서 대동보를 편수 발행한 후 진민사를 중수키로 하고, 1807년에 중수를 마쳤다고 하였다. 이 기문 끝에서 김굉은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며, “진민사는 본래 의성 읍민들이 세운 것이므로 자손들이 자기들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 세운 사묘(私廟)와는 크게 다른데 중간에 어떤 연유로 자손들이 향사를 주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하고, “내앞[川前]의 문중모임에서 반드시 의성의 향중으로 돌려주기로 하고 자손은 다시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니, 이 의논이 참으로 옳다. 그러나 의성의 읍민들이 정중하게 돌려받기를 사양했으니, 앞으로 점차적으로 옛날처럼 의성의 향중으로 되돌리고자 한다”하였다. 진민사의 성격으로 보아서 운영 주체가 의성읍민, 곧 향중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몇 백 년 동안 선조의 명령을 받들던 곳이 잡초우거진 폐허가 되는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예(情禮)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며, 진민사에 대한 모재-학봉-안응창이 정성을 언급한다. 이는 진민사 보전의 주체가 읍민에서 의성김씨 후손과 혈연으로 옮겨지는 역사적 추세를 직시한 것이다. 조선 후기부터 공동체의 전통적 제나 유산의 관리 주체가 지역공동체인 향중(鄉中)에서 씨족공동체인 문중(門中)으로 이동되는 추세는 안동 내앞마을의 동수 개호송을 수호하는 1757년의 「개호금송완의(開湖禁松完議)」에서도 보인다.<sup>27)</sup>

27) 내앞 마을의 동수 개호송(開湖松)이 황폐의 위기에 처하자 관리 책임 주체를 동중에서 문중으로 변경하는 완의이다.(김덕현, 「전통촌락의 동수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3,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86, 29~45쪽.)

1868년(고종 5, 무진)에 조정의 서원철폐령으로 의성 읍내의 진민사가 오토산의 묘소 아래에 별묘를 지어 옮겨지게 된다.<sup>28)</sup> 1890년에 진민사가 있던 자리에 유허비를 세웠다. 척암 김도화(金道和, 1825~1912)는 「진민사유허비각기」에 “왕명으로 서원철폐를 당하여 폐허가 됨은 어쩔 수 없으나 자취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비석을 세우는 일에 현감의 지원을 받고 종친들이 일을 도왔는데, 특히 의성현에 거주하는 종친들이 많았다”라고 적었다. 진민사가 운영의 주체에서 의성읍민이 아닌 의성김씨 후손으로 옮겨졌을 뿐 아니라, 의성읍 중심에 있는 사당은 철거되고 그 터에 유허비만 남기게 되었다. 1962년 진민사가 중건되는데, 위치는 오토산 김용비의 묘소 아래이다. 1962년 중재 김황(金樞; 佑林, 1896~1978)의 「진민사중건상량문」에 “1959년 족보 편찬을 마치고 각지의 후손들이 성금을 내어 새로 지으려고 했다. …… 묘소를 바라보며 가래나무와 잣나무를 보살피보니 곧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음을 생각하고 묘재(廟齋)에 들어가서 자손들의 모임을 즐긴다”라고 했다. 다시 1988년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오토산 묘소 아래에 진민사, 오토재, 사경당, 신도비각을 확대 중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김용비의 사당 진민사는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의성 읍내가 아닌 의성읍 남쪽 오토산 아래에 새롭게 정착하게 된 것이다.

진민사의 위치와 운영주체의 변화를 요약하면, 조선 전기까지 진민사는 의성 읍내 북쪽 도로변 관아에 인접했다. 제의 운영은 향리층이 주도하는 의성읍민이었고 관의 지원을 받았다. 조선 후기 17세기 후반 진민사는 관의 지원을 받아 관아의 동쪽 한적한 곳으로 이건하고, 유교적 사당으로서 제도를 갖추고 규모를 크게 하였다. 종인들을 모아 제사를 지내고 위토를 마련하였다 하니, 제의 성격이 유교적으로 변하고 운영도 후손인 의성김씨가 주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 국가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진민사는 의성읍을 벗어나 오토산 김용비의 묘소 아래로 옮겨지고 자손들의

28) 김원대(1965)의 「진민사묘정비명」에 “고종 무진(1865년)에 뜻밖에 서원철폐의 역운을 당하여 임시로 오토재에 봉안하니 …… 별도로 제사의 동쪽에 한 칸의 작은 별묘를 지어 뒷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하였다.

정성을 모아 증건 확충되었다. 이 때부터 진민사는 의성 읍민이 복을 비는 사당이라는 초기의 성격을 상실하고 의성김씨 문중 중심의 유교적 제사 공간으로 변형되었다. 진민사가 오토산 김용비 묘소 아래로 이동함으로써 제의 행사는 묘제(墓祭)와 밀접하게 결합된 것이다. 성황사에서 비롯된 김홍술의 사당과 진민사의 김용비의 사당은 같은 군현 제의였지만, 조선시대 유교적 제의화 과정에서 쇠퇴와 발전이라는 상이한 적응 양식을 보였다.

## 2. 오토산의 산세와 풍수

오토산(475m)은 김용비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의성읍에서 동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이다. 19세기 후반에 진민사가 의성 읍내에서 훼손되고, 오토산 묘소 아래 오토재로 옮겨왔다. 이로써 오토산은 의성김씨 시조 김용비의 묘소와 사당 진민사가 함께 있는 의성김씨 시조 추모의 중심 공간이 되었다. 오토산 묘소에는 16세기 중엽까지 묘비가 설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577년 김용비의 10대손인 청계 김진(金璣, 1500~1580)이 묘비를 세우는 사업을 발의하고 아들 학봉 김성일에게 묘비 입석 사업을 주선하도록 하였다. 동강 김우옹이 묘비문을 짓고, 김진 자신은 묘갈문을 지었다. 김진은 오토산 묘소에 입석하는 발문에서 “묘소에 묘지와 묘갈이 있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로 선조를 위한 구원(久遠)한 대책일 뿐이다. …… 그러나 오랜 세대를 지나도록 아직까지 묘갈이 없으니 몇 대가 지난 뒤면 묘소가 장차 언덕과 구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손들이 어느 곳에서 묘소인줄 알고 찾아서 그 추모의 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묘소가 자손이 선조를 추모하기 위한 의미 깊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 묘비와 묘갈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 중기까지 김용비에 대한 추모사업에서, 진민사는 의성읍(민)이 주도했고 오토산 묘소는 의성김씨들이 주도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오토산 묘소는 계파를 넘어서 의성김씨 전체를 단합시키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

오토산 김용비 묘소는 명당으로 많이 일컬어진다. 오토산 묘소는 그 산 중턱에 입지하여 고려시대 호족으로 지역의 수호신이 된 씨족 시조 묘의 특성이 보인다. 오토산의 입지는 전통 지리적 관점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의성군을 이루는 산수 형승(形勝)에서 오토산이 차지하는 의미이고, 둘째는 오토산에 대한 풍수적 해석이다. 산세(山勢)로 보면, 의성의 산줄기는 모두 보현산(1,124m)에서 나온다.(그림 3) 경북 중부지방에서 가장 높은 보현산의 맥이 북서쪽으로 뻗어 의성 전체의 산수 형승을 만든다. 북쪽 황(학)산 줄기는 의성 읍치의 주산 둔덕산에서 끝나고, 남쪽 선암산 줄기는 백장령을 만들고 두음산에 이른다. 가운데 줄기가 금성산 비봉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북쪽으로 가서 오토산을 만든다. 오토산 정상에 서면 북으로는 의성 읍이 전망되고 남으로는 금성산과 비봉산이 우뚝하니, 오토산은 고대 의성의 중심지 금성산 아래와 중세 이후 의성의 중심지인 의성읍을 이어주는 산이다. 오토산은 의성읍에서 보면 멀리 동남방에 우뚝하고도 생기 있는 조산(朝山)이 된다. 수세(水勢)에서 오토산은 의성군을 흐르는 두 지류의 하나인 남대천(창천)이 의성읍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킨다. 이처럼 오토산은 의성 읍치의 산수 형승을 생기 있게 지각하는 랜드 마크 역할을 하는 산이다.

오토산은 퇴적암 토산(土山)으로 오성(五星) 가운데 금성(金星)에 해당하는데, 둥글고 고요하면서 든든하고 묵직해서 넉넉하고 친근한 느낌을 준다.<sup>29)</sup> 금성산이 목성(木星)으로 곧고 직립해서 권위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김용비 묘소의 좌향(坐向)은 동향(兌坐震向)으로 멀리 들관과 물결치는 모양의 산줄기를 내려다본다. 오토산 앞에 펼쳐진 산들이 수성(水星)이니 ‘금생수(金生水)’하는 상생(相生)이 되고, 앞의 물길은 남남동(巳方)으로부터 와서 동북동(寅方)으로 흐르니 길하다.<sup>30)</sup> 동쪽 오상리 귀천에서 오토산을 바라보면, 거인의 굵은 손가락처럼 생기 충만한 산체(山體)는 많은 백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육산(肉山)의 특성을 느끼게 한다.

29) 이완규(『안동 풍수기행-돌혈의 땅과 인물』, 예문서원, 2001, 225쪽)는 산봉우리가 평평한 토성(土星)이라고 했다.

30)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120쪽.



<그림 8> 오토산과 첨사공(김용비) 묘소

김용비의 묘소는 거의 산 중턱에 위치하여 묘소에 오르면 수십 리 먼 거리가 조망된다. 고려 초기의 씨족 시조 묘인 안동 천등산 기슭 권태사 묘소와 유사한 특성이 보인다. 권태사 묘소처럼 김용비 묘소의 형국은 장군이 삼군(三軍)을 거느린 모습이라는 ‘장군대좌형(將軍對坐形)’으로도 해석된다. 넉넉한 육산 오토산 김용비 묘소에서 느껴지는 ‘금생수’, ‘장군대좌’ 형국의 상징성을 해석하자면, 자손을 번성시키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덕성(德性)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묘소 아래에 앞에 펼쳐진 들판에서는 남대천 물길이 구불거리며 좁은 문설주(捍門)를 빠져나가는 수구관쇄(水口關鎖)가 뚜렷하여 수법(水法)이 탁월한 형국이다.(그림 2)





<그림 9> 김용비 묘소의 金生水 將軍對坐形 형국

오토산 김용비 묘소의 명당(穴)에 대하여, 등을 걸어놓은 괘등형(掛燈形)이라고 해서 ‘등하불명(燈下不明)’을 말하고 유병(油瓶)에 해당하는 안산(案山)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한다. 안산은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데, 묘소에 올라서 보면, 수구 방향으로 생기 활발하게 파도처럼 밀고 나오는 안산의 산세가 뚜렷하다. ‘등하불명’에 대해서는, 1989년 오토산 추원사업에서 사당 일대와 후손들의 앞길을 밝힌다는 뜻에서 석등으로 장명등(長明燈)을 사당 진입로에 설치한 것이 등하불명의 역설을 극복하자는 비보(裨補)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림 10> 오토산 진민사 입구의 장명등

## V. 요약과 의미 함축

이 연구는, 의성군의 지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의성의 지역공동체 제의 공간인 성황사와 진민사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오토산 김용비 묘의 입지에 대한 전통지리학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첫째, 경상분지 안에 자리잡은 의성군의 대표적 소분지인 의성읍과 금성면의 지형 환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금성면 고분군·충렬사·진민사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제의 공간의 역사적 변화 추이를 고찰했다. 셋째, 자연을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유체계인 전통지리학의 입장에서, 의성군의 산수 형승을 살피고 오토산과 김용비 묘소에 대한 풍수적 지각을 살펴보았다.

의성군의 제의 공간은 고대의 고분군, 중세의 민간 신앙인 성황사와 지역 영웅을 신격화한 충렬사와 진민사로 전개되었다. 동아시아 고분시대에 조성된 금성면의 고분군은 7세기 이후 불교의 도입과 함께 제의 공간에서 사라지고 사찰과 불탑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11세기 고려시대 이후 성황사

가 지연 공동체 신앙으로 들어오면서 지역의 영웅적 인물인 김홍술과 김용비를 제사하는 사당이 세워져 의성의 지역공동체 제의로 행해졌다.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성황사 신앙은 국가의 인정을 받아 군현 제사의 위치를 얻었다. 그러나 유교국가 조선이 지역 수호신격에 대한 제의를 유교적으로 정비하면서 무속적인 성황사로부터 유교적인 사당이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의 주도 집단도 향리층 중심의 향중에서 사족의 중심의 문중으로 점진적으로 교체되었다.

조선 후기부터 군현의 의례를 유교 제의로 변화시키는 추세에 따라, 의성 읍내에 있던 성황사는 읍치 바깥 오토산 아래 고갯길의 성황단으로 이동하면서 쇠퇴하였다. 무속적인 김홍술의 사당은 둔덕산 골짜기에 입지한 충렬사로 이동되고 제의도 유교적 변모를 강요받았다. 다른 한편 김용비의 진민사는 당초 의성읍내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조선시대 계속 관(官)과 종족(宗族) 의성김씨의 지원을 받아 유교적 사당으로 변모하였다. 19세기 후반 조정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의성 읍내의 진민사는 오토산의 김용비 묘소 아래로 이동하여, 20세기에든 수차례 중건 증창을 거치면서 묘소와 사당이 결합된 유교적 추모 공간의 모습을 갖추었다. 조선시대 유교문화에서 강력한 문중 기반을 가진 김용비의 진민사와 향중에 주로 의존해온 김홍술의 충렬사는 제의의 유교화 과정에서 성공적 적응과 쇠퇴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통시대 한국인들은 산수형세를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했다. 한국의 전통 지리학은 산수 지형을 생명체로 간주하여 인간의 행태와 동물의 모습에 비유해서 그 생기에 감응하고, 산수형세를 관망하면서 바람직한 인간-자연의 관계를 비덕(比德)하는 인문지리학이다. 조선시대의 의성 읍지는 국토를 산경(山經) 체제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의성의 지리를 산줄기 계통으로 파악한다. 특히 김용비의 묘소가 있는 오토산은 풍수적 설명이 풍부해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의 여지가 많다. 다만 금성산을 중심으로 하는 비봉설화에 대한 고찰은 이번 연구에서 미치지 못하고 다음 기회를 기대한다.

의성의 제의 공간인 성황사·충렬사·진민사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교

적 사당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적응하면서 쇠퇴하거나, 성격을 바꾸어 지속되는 상반된 적응 현상을 나타냈다. 조선시대가 유교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역문화의 주도층이 지역공동체에서 씨족공동체로 변화되는 시대였다면, 현대는 그 반대로 지역문화의 주도층이 씨족이 아닌 지역공동체로 옮겨지는 것이 대세이다. 따라서 의성의 전통 제의 공간과 풍수적 현장은 더 이상 관련 문중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의성군 전통문화의 현장인 진민사와 오토산은 의성 지역민의 주도로 전통문화의 매력을 현대 사회의 요구에 결합한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존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제의 공간과 풍수적 현장은 문중의 사당이나 묘소에 그치지 않고 의성군이라는 지역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관광 유산을 확충한다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의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의 소통과 사람의 이동이 극도로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자연에 뿌리 박은 전통적 제의는 지역공동체 축제의 문화적 기초이다. 금성산 고분과 비봉설화, 그리고 오토산 풍수형국은 산을 매개로 자연과 감통(感通)하여 천인합일(天人合一)하고자 하는 우리 전통지리 사상이 현대 한국인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스토리텔링의 소재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8월 7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輿地圖書  
旅軒先生文集  
列邑院宇事績  
택리지  
鶴峯全集  
海東地圖

- 旗田蕪, 『朝鮮中世社會史의 研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 김덕현, 「전통촌락의 동수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3,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86.
- 김덕현, 「경상도 邑治景觀 연구서설」, 『문화역사지리』 16-1, 한국문화역사리학회, 2004.
- 김덕현, 「경상도 군현의 형성과 변화과정」, 『문화역사지리』 17-3, 2005.
- 김태근,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 김혜영, 『조선초기국가제사제례연구』, 집문당, 2003.
- 미르치아 엘리아데 지음 · 이은봉 옮김, 『신화와 현실』, 한길사, 2011.
- 변동명, 「성황신 김홍술과 의성」, 『역사학보』 188, 2005.
- 사)의성향토사연구회, 「의성의 수령비」.
- 의성군, 『의성군지』, 1998.
- 의성군 · 대구대학교중앙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의성군』, 2005.
- 의성김씨오토산추원사업회, 『義城金氏 五土山誌』, 1989.
- 의성문화원, 『의성문화』 24, 2009.
-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설전시도록 의성』, 2014.
- 이기태, 『읍치성황제주제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민속원, 1997.

- 이수건,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89.
- 이완규, 『안동 풍수기행-돌혈의 땅과 인물』, 예문서원, 2001.
- 조인철, 『우리시대의 풍수』, 민속원, 2008.
- 최원석, 「풍수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산 관념-천산·용산 그리고 인간화」, 『지리학논총』 19,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992.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000.
- 한국종교사연구회 편, 『성황당과 성황제』, 민속원, 1998.
-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7(경북편IV)』, 1979.
- 한형주, 『조선초기국가제례연구』, 일조각, 2002.
- 홍금수, 「조선후기~일제시대 영남지방 지역체계의 변동」, 『문화역사지리』 17-2, 2015.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의성문화대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Abstract

**A interpretation about symbolic meaning of the regional commemorative rite location change in Uiseong-gun**

Kim, Duk-hyun

Based on the understanding geography of Uiseong-gun, this study focuses o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shrine to the village deity, Jinminsa, and the traditional geographical interpretation about the location of Kim Yong-Bi's tomb on Autosan. Uiseong-gun is a small part of the Gyeongsang basin. Small basins such as Uiseong-eup and Geumsung-myeon are representative historical living spaces of Uiseong-gun. I examined the changing trends of regional commemorative rite such as Chungyeolsa and Jinminsa. Jinminsa, the shrine that made a commemorative rites for the Uiseong-Kim' prime ancestor developed successfully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by movement of its location. In late Joseon dynasty, the hegemonic group of Jinminsa was changed from regional community to clan community of Uiseong-Kim and the location of Jinminsa moved from inner city to mountain area of Kim Yong-Bi's tomb on Autosan. In the standpoint of traditional Korean geography, The advantageous positions of Uiseong-gun were studied and fengshui perception about Autosan explored. In contemporary societies, traditional place and story offer cultural foundations of the Community Festival. Also, it is

a useful material of storytelling to the Korean people who want to become familiar with the nature.

**key words** : ancient tomb, Autosan, Jinminsa, fengshui, regional commemorative rite, shrine to the village deity, storytelling, Uiseong-gun